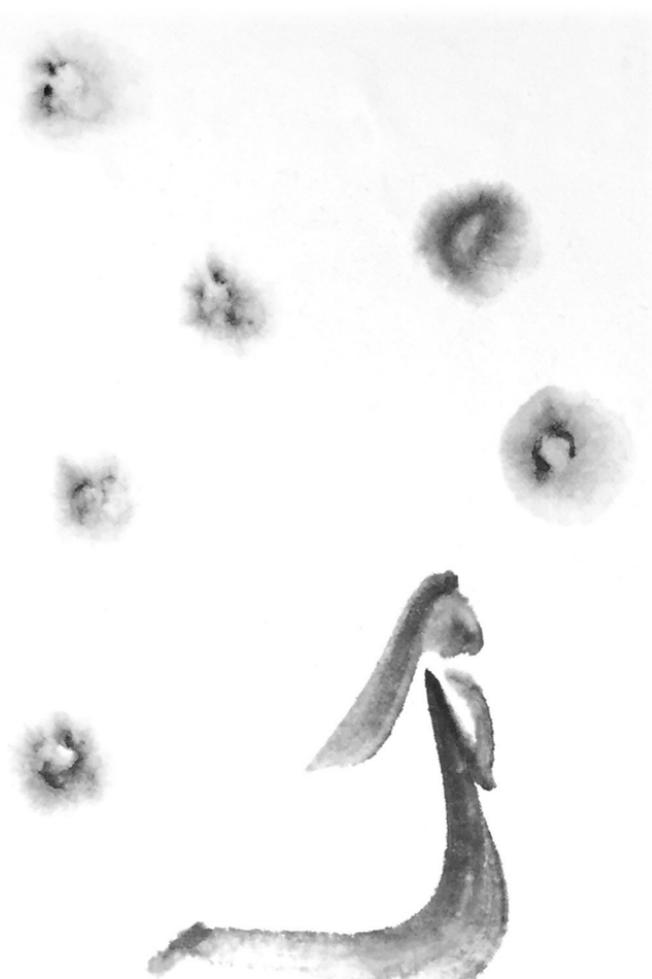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9

성모기사

01



1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성모님과 함께 죄인들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02
박용희
-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08
홍민용
- 새로운 시작 14
진동길
- 콜베 성인의 겸손 1 20
최문기
- 속삭임 26
강 아만다/시·변수현 /그림
- 콜베 성인과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28
오경순
- 중세 미술의 숨겨진 꽃 34
박성혜
- 다시 가야 할 길 44
권순만
- 내 안에 찾아온 행복 52
김수빈
- 함께하는 이모저모 59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카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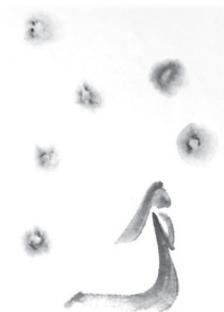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눈으로 보는 전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Solemnity of the Blessed Virgin Mary, the Mother of God)

박용희 아가타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복음(루카 2,16-21)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전례적 의미

성탄 팔일 축제의 거행이 끝나는 날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다. 에페소 공의회(431년)는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Theotokos)’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이는 사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곧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고백한다는 의미이다. 즉,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

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성부의 뜻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강생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 성모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인성을 받아 들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성모 마리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느님께 전구하시는 ‘교회의 어머니’이시다. 따라서 새해의 첫날을 경축하는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총과 복(福)에 감사드리는 한편,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하며 하느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다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는 해마다 1월 1일에 이 대축일을 지내고 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

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한다.

묵상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품위를 잘 드러낼 것 같은 모델로 19세의 젊은이 피에트로 반디네리를 택했다. 그 뒤 6년 동안 11명의 제자들을 그렸고, 마지막으로 배반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특징을 잘 담을 수 있는 모델을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어느 부랑자의 얼굴에서 유다를 느꼈고, 그를 모델로 배반자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랑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피에트로 반디네리였다.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죄인을 성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

나 의미 있게 느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작품 설명

온갖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느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일을 지내며, 새 시대를 열어 주신 그분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총의 완성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길 염원하였다. 1년 내내 녹색을 띠는 소나무에 평화의 상징을 담았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모님의 순결을 흰색 장미로 표현하였다. 또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를 극락조화로 나타내었다.

작품 소재

소나무(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왕대(벼과, *Phyllostachys bambusoides* S. et Z.)

장미(장미과, *Rosa hybrida* spp.)

극락조화(파초과, *Strelitzia reginae*)

라능쿨루스(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asiaticus*)

엽란(백합과, *Aspidistra elatior* Blume.)

동백나무(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브루니아(브루니아과, *Brunia albiflora*)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라강시엘 화예디자인연합회장
전국전례꽃꽂이연구회 상임 위원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례꽃꽂이교육원 지도 교수

바뇌의 성모님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 노트르담 드 바뇌 -

홍민용 알로이시오



본 글은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노트르담 드 바뇌-> 영상의 내용을 편집 및 각색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동명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현대 신앙인의 위기

물질문명이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재화로 판단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툭툭히 누리며 편안하고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도 나오듯, 모든 사람이 오늘날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한 끼 해결을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서운 추위에도 방에서 따듯하게 보일러 한번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들, 아파도 진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외에도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 주위를 둘러본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재화, 즉 돈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물질 사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며,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경쟁이라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논리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겨야만 한다고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재화, 즉 돈을 중시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을 당연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잃고 목적지 없이 헤매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충족은 잠시뿐이며 끝없는 갈증만 불러일으키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쟁이라는 다툼 속에서 우리들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지만, 설 수 없는 쳇바퀴 같은 삶의 모습에서 늘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은 또 어떠한가? 일상의 삶 안에서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신앙이 부딪히고, 심지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된다. 실제로 신앙을 선택하기에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현실을 선택하기엔 신앙인으로서 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어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찾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신앙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알려 주는 모범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러한 모범, 물질적인 갈증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헤매면서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빛과 길을 알려 주시는 신앙과 삶의 모범을 성모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성경과 전승을 통해 드러나는 성모님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인류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몇 번씩 우리에게 발현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과 삶의 빛과 길을 알려 주셨음을 본다면 성모님이 혼란한 이 시대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특별히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그중에서도 1933년 벨기에 남동부 리에주에 위치한 아주 가난하고 작은 마을인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발현과 그 메시지로, 현 시대에 물질적이고 영적인 ‘가

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을 주신다. 바뇌의 성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하셨으며,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해 주셨을까? 필자가 이 글과 같은 제목의 영상물인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 -노트르담 드 바뇌->를 제작하면서 만난 바뇌의 성모님을 이러한 주제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2017년 어느 날, 수도회의 홍보 담당 사도직인 아이콜베(미디어 제작) 책임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바뇌의 성모님에 대한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왔다. 사실 성모기사회의 일도 맡고 있어서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에 대해, 그리고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와 연관된 루르드의 성모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관심도 크게 가지지 않고 있었다. 바뇌의 성모님의 경우 이야기는 들었지만, 바뇌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상 제작을 위해 바뇌의 성모님에 대한 공부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경쟁 사회에서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한, 즉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에 대한 성모님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뇌에 발현하신 성모님과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 파티마와 과달루페에 발현하신 성모님은 절대 다른 분이 아니다. 하지만 발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성모님께서서는 다른 모습과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 이런 점에서 1933년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이 시대에 보다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새로운 시작

진동길 마리오

쿵! 아이쿠! 야야!

인간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작은 골목길에서 마주해 오는 외제차를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비켜 준다는 게 그만 지나쳐서 전봇대를 보지 못한 채 오른쪽 뒷문을 급히 고 말았습니다. 뒷문이 찌그러지고 급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차의 뒷문이 찌그러진 만큼 자존감도 찌그러졌습니다.

“아이쿠! 야야!”

아직도 차 안에 탄 사람은 보지 못하고 차만 보고 있구나. 비싼 차, 비싼 옷, 높은 지위 앞에서 여전히 찢찢매고 있구나. 쫓쫓! 야야, 겉모습에 휘둘리는 삶보다 진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마리오야.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네 번째 아내를 사랑했지요. 그녀와 늘 함께했고 좋은 음식을 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기해년(己亥年)에도 성모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부인도 사랑했습니다. 공들여 얻은 세 번째 아내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만큼 그는 그녀가 자기를 떠나갈까 봐 항상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는 둘째 아내도 역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두 번째 아내는 그와 대화도 잘 통했고, 외로울 때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늘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상하게도 첫 번째 아내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그를 가장 사랑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떠나면 나라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는 길고 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아내들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멀고 먼 여행, 기약 없는 여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장 사랑하는 네 번째 아내

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당신과는 살만큼 살았어요.”

크게 실망한 남자는 세 번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난 당신을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소. 나와 함께 떠납시다.” 그러나 세 번째 아내 역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떠나면 난 재혼할 거예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렇게 자신의 자랑이었던 세 번째 아내마저 냉담하게 거절하자, 남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둘째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늘 마음이 잘 맞았소. 늘 음식을 나누며 추억을 함께한 당신이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좋겠소.” 그러자 그녀는 “마을 입구까지 배웅은 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행은 함께할 수 없어요.”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남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나지막하게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어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돌아보니, 그것은 첫 번째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과 내조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달려가 첫째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을 더 잘 대해 주었어야 했는데…….”

네 명의 아내의 의미

우리는 모두 일생 동안 네 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산다고 합니다. 먼 나라로의 여행은 죽음을 뜻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가야 할 여행이지요.

넷째 아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죽을 때는 두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명예와 재물’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대해 주어도 먼 길을 나서면,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가 버리고 말지요. 두 번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며 함께했다라도 기껏해야 무덤 앞까지만 동행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아내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자, 우리가 몸을 치장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느라 소홀히 그리고 함부로 다룬 우리의 ‘영혼’입니다.

새로운 시작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내 영혼

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래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과 걱정과 원한으로 내 영혼과 마주했다면, ‘내 영혼’은 어쩌면 나보다 더 아파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살아가는 동안 몸을 치장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사는 것. 소홀히 해서 안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일 것입니다.

허례허식에 사로잡힐수록 영혼은 수척해집니다. 또 과도한 명예욕과 탐욕은 오히려 영혼을 아사시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존적인 삶은 홀로 견뎌야 할 인고의 시간이 닥치면 힘없이 우리를 무너트릴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몸을 치장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외모, 부와 명예,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절망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영혼은 본래 하느님의 것이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

는 영원을 동경하고 창조주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쾌락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재물의 소유가 결코 가져다줄 수 없는 것이지요.

‘영원을 동경하고 진리이자 순수이신 분을 그리워함’은, 육체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인간은 결국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깨달을 수 있겠지요?

불멸의 육체는 없습니다. 영원한 소유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육체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을 겪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국 본래 ‘하느님의 것’인 영혼만이 나와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콜베 성인의 겸손 1

최문기 마티아

프란치스칸 영성

프란치스칸 영성은 “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철저히 일치하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프란치스칸 영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회의 창설자인 프란치스코가 직관하고 형제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가난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였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여정을 일컬어 “순종과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난과 겸손 그 자체가 시므로, 그분과 일치하려는 형제들의 여정 역시 가난과 겸손을 동반한 것이어야만 했다.

프란치스코의 충실한 계승자인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에게도 그리스도의 겸손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유래하는 ‘신적(神的)인 속성’이며 모든 덕행의 근원인 동시에 성화(聖化)로

콜베 성인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범을 성 프란치스코 안에서 발견했다.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의미하였다. 그는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겸손은 모든 덕행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의 원죄는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겸손은 모든 영적 덕행의 근본이자 근원이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각은 하느님과 분리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 앞에서 작은 존재임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느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다가오는 인간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 “성모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비웃고 경멸하는 영성적 무기들처럼 부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공덕을 주시고 보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자 감히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이익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좌절이나 실패가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해 주며,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켜 준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넘어진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아기들이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걷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좌절은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능력이 충분하고, 그만큼 노력했으며,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여길 때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함의 갑옷을 입은 이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범접하지 못한다. 이렇듯 인간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겸손을 통해서 하느님의 대전으로 이끌려 나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를 얻게 된다.

겸손과 교만

콜베 신부는 젊은 시절에 죽음의 위기가 닥칠 만큼 병을 심하게 앓았다. 그 병고는 평생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시험과 시련의 그 시기가 결코 절망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과 피곤에 합당한 준비, 즉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모든 실패와 좌절 역시 마치 더 높은 완덕을 향해서 나 있는 계단처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서는 자기애와 교만을 치유하고,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며,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 더욱 유순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한편, 악마는 고통의 순간에 내적인 분란과 불신이 파고들도록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만의 징후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잘 인식한다면 좌절에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모님처럼 놀라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곧 성모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아니라면 인간은 어떤 죄악에서도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하며, 그

겸손을 나날이 성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인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콜베 신부는 이야기한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보면,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를 들려준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여기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신비는 하느님의 신성의 지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현존하셨다는 사실이다. 겸손의 장에서 신성과 인성은 연결되며,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통해 보여 주셨던 그 종의 모습, 즉 종의 삶은 인간인 모습인 동시에 하느님의 모습이다.

콜베 신부는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며,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범을 성 프란치스코 안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연결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겸손으

로부터 이끌어 내며 이렇게 권고한다. “형제들, 늘 프란치스칸의 단순함과 정숙함과 겸손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속삭임

강아만다

오늘의 햇살은
오늘을 깊게 하고
오늘의 바람은
오늘을 넓게 한다.

오늘의 노래는
오늘을 맑게 하고
오늘의 기도는
오늘을 영글게 한다.

새해
햇살과 바람
노래와 기도 속에
미소 머금고 계신 성모님

‘새날을 따스하게
새해를 희망차게’

가만히 속삭이시다.



범수점 로사

콜베 성인의 벗들

콜베 성인과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콜베 성인과 창립자 미로하나 신부님

오정순 비비안나



월간 「성모기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은 후 고민이 많았다. 특별한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쓸 수 있을지 두려웠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여전히 걱정이 앞서지만,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콜베 성인과 창립자이신 미로하나 신부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며 용기를 내 본다.

성모기사회 100주년을 돌이켜 보며

2017년 10월은 성모기사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 성모기사회도 102살이 되는 셈이다. 성모기사회 창립 100주년! 웬지 모를 감동으로 마음이 뭉클해진다. 한 세기를 이어 내려온 성모기사의 영성은 분명 하느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활동해 온 성모기사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한편, 교회 안에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모기사회원들의 사명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립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갈수록 진화하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간의 지적 능력에 다양한 형태로 시시각각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놓인다면 언제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멀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심지어 우리는 때로 커다란 신앙적 오류를 범하거나 헤어 나오지 못할 불행한 사실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모기사회원이자 그 영성을 토대로 살아가는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통상적으로는 '성모의 기사 수녀회'로 불린다)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적 삶을 반추함과 동시에, 성모기사회원들과 함

께 수도회의 영성을 나누고 협력자로서의 도움 또한 청해 보고자 한다.

스승과 제자

콜베 성인과 수녀회의 창립자이신 미로하나 신부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립하면 사부(師父)와 제자의 관계이다. 미로하나 신부님은 성인의 애제자였고, 신부님 또한 평소 콜베 성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콜베 성인에 대한 흥미가 얼마나 컸던지, 미로하나 신부님은 가족이자 사제인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 성인과 함께 낯선 땅인 일본의 선교 활동에 망설임 없이 참여하셨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로하나 신부님은 평소 존경하던 콜베 성인을 무작정 쫓아가고 싶으셨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참 순수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언뜻 보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신앙이나 지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넘쳐나는 오늘날 한 사람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진정한 존경을 표하는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아무튼 콜베 성인의 자서전에서도 보면, 1930년 성인과 함께 일본 선교 여정에 오른 신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수녀회의 창립자이신 미로하나 신부님이다.

미에치슬라오 마리아 미로하나 신부님(Mieczyslaw M. Mirocha, 1908~1989)은 생전에 수녀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 수도회는 내가 창립한 것이 아닙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이 창설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콜베 성인의 뜻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콜베 성인께서는 철저한 프란치스코이기도 했지만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확고하셨기에, 평소 특별히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 정신으로 봉헌된 수도회를 창립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 안에서의 성모신심과 폴란드 국민의 깊은 성모신심을 생각한다면, 콜베 성인과 미로하나 신부님의 성모님 사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당시 성모님을 열애하는 콜베 성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동료 수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선교지에서 콜베 성인의 사도직을 돕는 가운데 미로하나 신부님은 1935년 끈베틀알 프란치스코회의 회원으로서 사제품을 받으신 후, 1936년 콜베 성인이 폴란

드로 돌아가자 그 뒤를 이어 소신학교 교장, 수도원 원장, 수련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본의 수도회 회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셨다.

신부님의 유언

창립자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콜베 성인으로 연결된다. 성모의 기사 수녀회의 창립자이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 늘 콜베 성인이 창립자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의 그러한 단순함과 겸손의 미덕을 본받으면서, 회원들은 콜베 성인을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영적 창립자로 받들며 그 영성으로 봉헌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나는 어느 원로 수녀님의 말이 떠오른다. 창립자 신부님은 인간적인 단점도 지니셨지만 매우 단순하고 영적으로 맑으셨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아쉽게도 미로하나 신부님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수녀님들이 기억하는 신부님의 행적들을 통해 지극히 프란치스코적이며 사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989년에 귀천하신 신부님의 세 가지 유언



을 통해서도 헤아릴 수 있다. 수도회 회원들이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정신으로 완전하게 봉헌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말이다.

“성인이 되시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정신으로 살아가시오.

나는 천국에서 모든 자매들을 도와주겠소.”

성인이 되는 길, 콜베 성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길. 이 모든 것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봉헌의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수도회 회원들을 위해 성모님과 콜베 성인 곁에서 항상 전구해 주고 계실 신부님을 상상하며 힘을 얻는다.

중세 미술의 숨겨진 꽃

박성혜 테레사

대체로 그리스도교 미술은 박해 시대 이후 예배 공간이 공식적으로 축조되고, 그리스도교의 전례가 확고한 틀을 갖게 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독자적인 교회 건축이 탄생되고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벽화와 조각이 발달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서 필사본이 눈부신 발달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건축, 조각, 벽화, 필사본은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성서 필사본 원본은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일반 신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그리스도교미술 연구회는 중세 미술의 진정한 꽃인 성서 필사본에 관하여 「성모기사」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필사본(Illuminated Manuscripts)이란?

라틴어의 'illuminare(꾸미다)'에서 유래한 필사본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필사하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 장식으로 꾸며 만든 책이다. 대부분의 경우 필사본은 필사가와 화가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스크립토리움(scriptorium)

이라 불리던 작업장에서 필사가는 본문을 정서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화기는 첫머리 글자를 장식하는 작업, 테두리를 꾸미는 작업, 성서의 내용을 묘사하는 채색 삽화를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필사본은 주로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수도원에 따라 필사본의 필체나 삽화에 들어간 그림 유형이 구분된다.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각 지역의 수도원에서 제작된 필사본의 유형적 차이는 옛 필사본의 제작처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되곤 한다. 고대에 제작된 필사본은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사자死者의 서(Book of Dead)’와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형식이었으나, 3~4세기 이후로는 오늘날의 책과 유사한 형식(코덱스codex)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로스노 복음서(5-6C) - 최후의 만찬

중세는 역사적으로 박해 시대 이후부터 르네상스 이전 시기를 의미하며, 문화사적으로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구분된다. 중세 필사본은 연대기적으로 비잔틴 양식, 섬 양식(아일랜드와 브리튼), 카롤링 양식, 오토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으로 세분화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중동을 포함하여 비잔틴(현재의 이스탄불) 지역에서 제작된 것과 서유럽 지역에서 제작된 것, 그리고 아일랜드와 브리튼(영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별된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나뉜 필사본 중에서 각 양식의 대표적인 필사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5~6세기에 제작된 로사노 복음서를 들 수 있다.



Otto III 왕좌에 앉은 오토 3세



드로고 전례서
- 이니셜 'C' 예수의 거룩한 변모

● 비잔틴 양식 필사본

로사노 복음서(The Rossano Gospels or The Codex Purpureus Rossanensis) : 5~6세기에 제작된 복음서로서 현존하는 신약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자주색 양피지에 은색 잉크로 제작되었으며, 30cm×25cm 크기이고, 21.5cm 정사각형 블록에 20개의 줄이 각각 2줄씩 쓰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탈리아 로사노 성당에 보관 중이다.

● 카롤링 양식 필사본

드로고 전례서(Drogo Sacramentary) : 카롤링거 왕조 시기의 대표적 필사본인 드로고 전례서는 850년경 메스(Metz)의 주교이며 샤를마뉴의 아들인 드로고에 의해 제작되었다. 삽화가 들어간 알파벳 이니셜을 식물 문양 장식과 금박으로 치장하고, 색상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필사본이다. 26.4cm×21.4cm 크기에 130개의 폴리오(Folio)로 구성된 이 전례서는 메스 생 테티엔 성당에서 성찬 전례에 사용되었다.

● 오토 양식 필사본

오토 3세 복음서(Gospels of Otto III) : 오토 양식의 대표

적인 필사본으로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에 라이헤나우 수도원에서 제작되었다. 비잔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필사본은 크기가 33.4cm×24.2cm, 276 폴리오이다. 필사본은 12개의 캐넌 테이블과 4대 복음사가를 비롯해 34개의 세밀화로 구성되어 있다.

●섬 양식 필사본

켈스의 서(Book of Kells) : 800년경 아일랜드의 글룸바 수도원에서 제작되었다. 인슐라 양식의 대표적인 필사본으로서 신약의 4대 복음서와 예수의 전기, 그리고 몇몇 보충적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화려한 색상의 장식



The Book of Kells, (folio 292r), 사도 요한



Facundus-Beatus 양의 환영, 4개의 치보리움

문양과 함께 동식물이 서로 얽혀 피조물의 길거나 휘어진 몸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첫 글자 이니셜이 다채로운 아라베스크가 켈트족의 문양을 대표한다. 책의 크기는 33cm×25cm이고 340폴리오로 되어 있으며 양질의 송아지 가죽에 빨강, 검정, 노랑, 보라 등 다양한 색상의 잉크로 필사되었다. 동시대 필사본 중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켈스의 서」는 켈스 수도원에서 보관하다가 지금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소장 및 전시 중이다.

●스페인 필사본

베아투스 필사본(Morgan Beatus) : 스페인 리에바나의 수도원장 베아투스에 의해 8세기에 제작된 요한 묵시록의 주해서이다. 이후 베아투스의 주해서 복사본이 제작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26종이며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Apocalypse’라 불린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8세기 마이우스(Maius)에 의해 제작된 「Morgan Beatus」가 현재 전해지는 베아투스 필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베아투스 필사본은 당시 스페인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랍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모차라브 양식이라는 독특

한 스타일로 제작되어, 화려한 색상이나 표현 방법에서 동시대 다른 필사본과 구별된다. 크기는 38.7cm×28.5cm이다.

필사본 제작 과정

필사본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양피지나 우피지에 제작되었다. 필사를 위한 양피지나 우피지의 준비 과정은 동물 가죽의 세척작업으로 시작하여, 약품 처리를 거친 장시간의 건조 작업 이후 무두질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오랜 노동과 시간을 요하는 매우 복잡한 선제 작업이었다.

양피지가 준비되면 그 위에 먼저 소묘를 하고,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 순으로 채색하며, 금을 바르는 곳은 금이 잘 입혀지도록 미리 바탕 처리를 하였다. 주로 식물이나 광물 등에서 추출한 색료와 달걀노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템페라 기법으로 채색되었다. 채색과 건조를 반복하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옷의 주름이나 얼굴 표정 등의 섬세한 부분들을 조화롭게 강조하는 것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중세의 성서 필사본은 주로 미사 중에 쓰이는 기도문이 수록된 전례서, 네 복음서가 모두 들어 있는 성서, 주일 미사나 축일 미사에서 읽는 복음서, 수도자들이 사용하는 기도서 외에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필사본의 크기는 여러 가지였는데, 대략 미사 중에 쓰이는 복음서나 전례서는 30cm×45cm 정도이고, 도서관이나 수도원에 보관하는 기도서는 길이 20~35cm, 폭이 15~25cm 정도 되었다. 그 밖에 개인적인 기도용 필사본은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위의 것들보다 더 작게 만들었다.

필사본 제작의 난이성과 전문성은 무아사크(Moissac) 수도원의 문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으로 된 원본을 어학 능력이 뛰어난 수도사들에게 맡겨 필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엔 삽화 단계로, 화가가 전담하여 묘사와 채색 작업을 진행하였다. 간혹 뛰어난 필사가가 화가의 역할도 맡는 경우가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필사본의 제작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은 주로 왕이나 귀족 또는 고위 성직자였다. 그리하여 화려하고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강한 채색 세밀화 필사본은 소유자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샤를르 르 쇼브 성서」, 「베리공의 대기도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성서 필사본은 필사가와 화가들의 노력과 빼어난 솜씨가 없었다면 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문자, 제작자, 사용자의 깊은 신앙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존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작자들의 깊은 신앙과 정성 및 체취가 배어 있는 중세 필사본은 14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발전되어 온 인쇄술(1450년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의 등장으로 조금씩 그 빛을 잃어 갔다. 하지만 한동안 희소가치와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았다. 금과 은이 사용되어 ‘illuminated’라 불렸던 필사본은 중세의 최고위층만 누릴 수 있는 지적(知的) 사치였다. 우르비노 공작은 “도서관에서 인쇄된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고 했다. 인쇄된 책자가 시중에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르비노 공작과 같이 필사본에 깃들여 있는 시간과 정성으로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다.

앞으로 비잔틴 양식, 아일랜드와 브리튼 양식, 카롤링 양식, 오토 양식을 비롯하여 스페인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필사본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함께할 것이다. 중세를 찬란히 빛냈던 필사본의 매력과 성경을 필사하던 장인들의 숨결이 이 글을 읽는 「성모기사」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다시 가야 할 길

권순만 목사



글을 시작하며

나의 이야기는 순전히 한 분의 공감으로 시작되었다. 그 분의 감동 하나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잊고 살았던 아득한 지난 이야기들까지 생생하게 기억난 것은 나 자신도 놀랄 일이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은혜 받은 자는 나 자신이다. 텅 빈 공간 같았던 내 삶이 풍성히 넉넉함을 느낀다. 무엇

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걸어온 길이 나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임을 확신하기에, 다시 삶이 주어진다 해도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자비량 선교사로 이탈리아에서 30년을 살았다. 자비량 선교사란 지금은 많이 알려진 선교 모델이지만, 예전만 해도 매우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었다. 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이 따로 있는 선교사를 말한다.

나의 이야기는 특별한 선교 일화는 아니다. 감동적인 선교 성공담과도 거리가 멀다. 그냥 한 무명 선교사가 겪은 삶의 에피소드이다. 단지 이탈리아, 외국인, 캠퍼스 전도, 자비량 선교사란 배경과 직분이 조금 색다를 뿐이다.

이탈리아에서, 특히 로마에서는 폐허가 된 옛 유적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멋지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생각하지 못한 작품이 나온다.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 본 글이 이렇게 비취지길 바랄 뿐이다.

장발장 라면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라면이 이렇게 나를 갈등하게 할 줄 몰랐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금단의 열매 앞에 선 최초의 인간이 겪은 갈등이 이러했을까?

내가 처음 이탈리아에 와서 거주한 곳은 외국인 언어 대학이 있는 중부 움브리아주의 주도 ‘페루자’이다. 페루자는 작고 조용한 중세 도시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이탈리아어 초급 과정을 마치고 먼저 온 선교사가 있는 로마로 향했다. 로마는 페루자에 비해 거대하고 복잡하며 시끄러운 도시였다.

선교지에 올 때 거처가 없으면 텐트에서라도 자겠다면 침낭 하나를 준비했지만 현실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다. 때는 추운 겨울인 1월이었다.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주택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이고, 일반적으로 두세 달치 집세를 한꺼번에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세를 잘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 여부는 물론 신분 증명까지 해야 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답답한 마음에 로마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니콜로 언덕에 올라 보니, 온 천지가 다 집인데 내가 머물 한 평의 방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멍멍하였다. 먼저 온 선교사가 기거하는 비좁은 방에서 1주일을 지내다 겨우 로마에서 유학하는 성악가의 집에 임시로 얹혀살게 되었다. 페루자에서 알게 된 분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로마 외곽 지역에 있는 다소 오래된 연립 주택 2층이었는데 방 한 칸과 부엌 딸린 거실이 전부였다. 나는 거실에서 침대 없이 카펫 위에서 잠을 잤다. 그나마도 형제가 하루 종일 그곳에서 발성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전 8시 이전에 나와서 저녁 8시 이후에 들어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집을 나오면 막상 갈 곳이 없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바(bar)에서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겐 생소한 일이기도 했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 당시 저녁엔 한국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점심 영업이 끝나는 오후 3시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에 일하기 전에 식사를 하지만 늦게 일을 마치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집에 돌아오면 늘 배가 출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주방 선반에 라면이 놓여 있었다. 지금이야 한국 식품점은 물론 중국 식품점에도 널려 있고 값싼 것이 라면이지만, 그때는 보기조차 힘든 금싸라기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고국에서 오는 소포나 선물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이 라면이었다. ‘라면’이라 쓰인 한글만 보아도 행복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아껴 먹곤 했다.

다음 날 라면이 없어졌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대로 있었다. 여러 개가 있었으면, 아니 두 개만 있었어도 그렇게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을 텐데 야속하게 딱 하나만 있었다. ‘아끼려고 남긴 것일까? 아니면 잊은 것일까?’ 어느덧 라면의 유혹 앞에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만약 먹으면 금방 표가 날 것인데 그렇다고 배고파서 먹었다고 말할 뻔뻔함도 없었다. 더욱이 잠자는 형제를 깨워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제력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마음은 끊임없이 망설임과 갈등을 반복하는데, 손은 주인의 허락 없이 라면을 뜯고 말았다.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의 심정으로 라면을 끊었다. 그리곤 모든 것을 잊고 후루룩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아! 그 맛이란!

다음 날 아침, 형제에게 조용히 자백하려고 방 앞을 서성거렸는데 일어나지 않은 듯해 그냥 집을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 보니 일찍 자는지 조용하였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와 마주칠 기회가 생겼다. 난 그가 대뜸 라면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봐 주길 원했다. 그런데 전혀 묻지를 않았다. 아직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해 주는 것인지, 어떻든 라면 하나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듯했다. 그래도 말을 해야겠는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내게 선교사님이라고 깽뚝이 부르는 형제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에서 라면 하나를 지워 주시기만 바라고 있었다.

3개월 후, 아내가 이탈리아에 왔고 아내의 언어 공부를 위해 로마를 떠나 다시금 페루자로 가면서 그와는 소식이 뜸해졌다. 내가 피렌체를 거쳐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땐

그가 귀국한 후여서 지금까지 근황도 모르고 지내 왔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야 한국에 있는 형제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게 전율이 오는 기쁨이었다.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그렇지만 보은의 기회를 얻은 것이 더욱 그러하였다.

갈 곳 없는 나그네 같았던 내게 베푼 은혜

이탈리아에 한국과 같이 찻집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바(bar)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잠시 서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가는 곳이었다. 결국 내가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는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였는데, 그곳의 벤치는 돌로 된 것이라 차가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피할 곳은 로마 중앙역의 대합실뿐이었다. 그마저도 때때로 표를 검사했기에 눈치껏 있어야 했다.

선교 초기의 아련한 추억들이 아픔이 아닌 벽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시절엔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서울인데도 콩보리밥을 싸 온 친구까지 있었다. 나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배고픔은 그다지 모르고 자랐다. 그러다 선교지에 와서 처음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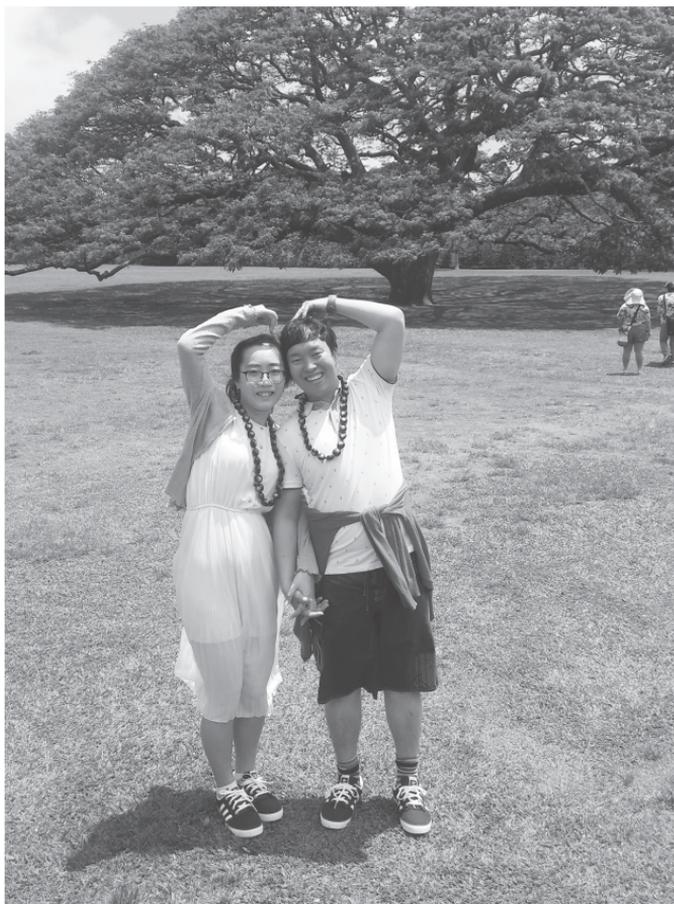
고품이란 것을 알았고 집 없는 자의 고통을 뺏속 깊이 체험하였다. 이것은 내게 배고픈 자의 심정과 집 없는 자의 아픔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하고 보화 같은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온 버팀목이 되었다.

“배고픔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이다.”

여기는 작은꽃밭

내 안에 찾아온 행복

김수빈 가브리엘라



성모기사회는 제게 삶의 의미를 찾아 준 모임입니다. 일상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과 조금씩 멀어질 때 성모기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까지 꾸렸으니, 이게 바로 '행복'인가 봅니다.

찬미 예수님!

성모기사회를 알기 전에, 저는 혼자 성당을 다녔고 직장 때문에 교리 교사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의 소개로 성모기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평소에 저는 '성당 활동을 오래 해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터라 주일 미사만 겨우 드리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도를 맡으셨던 박상규(마리아교보) 신부님과 여러 성모기사회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원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5~6명 정도가 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기존의 신심 단체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주 기도, 신심 미사, 월례회의, 콜베 성인의 말씀을 나누고 신부님의 논문을 함께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친구에게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성모님의 도움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회원들과 한층 더 소통하고 인연을 맺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성모기사회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고, 회원들과 만나는 게 좋아졌습니다.

꽃지에서

처음에는 혼자 하던 신앙생활을 누군가와 같이한다는 기쁨에 더욱더 모임에 잘 나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더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과 성모님이 제게 주신 은총인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심으로써 다시 힘내서 주님과 성모님 곁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 고문님의 도움을 받아 성모기사회에 가입하게 된 저는 매월 첫 토요일에 열리는 ‘작은 꽃’이라는 청년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참석했을 때 기도조차 부담스러워하던 저의 손에는 박 신부님이 주신 말린 장미로 만든 목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잊고 살았던 목주 기도 방법을 다시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예전에는 목주 기도를 할 때 각 단의 신비를 외우지 못했는데, 성모기사회 모임에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조금씩 외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은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지요.

성모기사회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째 되었을 무렵, 목주 기도가 손에 익기 시작하던 2014년에 저는 성모기사회 ‘작은 꽃’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많이 여쭙 보았는데, 요셉 고문님과 신부님의 전폭적인 응원 덕분에 얼떨결에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을 맡아 본 적이 없는 저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성지 순례와 피정 등 여러 행사를 책임지고 주관하며 열심히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성모기사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많이 위축되었던 제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이 예쁘고 소중한게 느껴졌습니다. ‘주

님과 성모님이 나를 성모기사회에 불러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를 아름답게 키워 주시려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그때부터 제 안에 조금씩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2015년 어느 날, 요셉 고문님이 제게 신입 회원의 연락처를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신입 회원일 때의 기억도 떠오르고 해서 그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도 여기서 행복을 느끼기를 바랐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도 임원진에 합류하였고, 모임 안에서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활 성야 미사 후에 그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의 얘기는 길게 이어졌고, 고민 끝에 진지하게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인 정섭규 바오로입니다. 모임 안에서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니다.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더욱 열심히 활동하자고 다짐했으며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백

만남을 쭉 이어 가던 어느 날, 바오로가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더 같이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혼인 미사를 올리기로 했고, 상견례를 마친 양가 부모님 역시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혼인 날짜를 잡고 성모기사회 모임에 나온 저와 바오로는 달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파티마의 성모 발현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과 요셉 고문님도 성모님의 은총을 받았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바오로는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며 웃곤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준답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냉담 직전까지 갔던 저는 성모기사를 통해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기사회원들과 지도 신부님이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기다려 주신 주님과 성



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묵주 기도를 잘 바치지 못하던 제가 묵주 기도 없이는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님과 성모님 안에서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아 좋은 가정도 꾸리게 되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바오로, 그리고 모든 성모기사회원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이러한 행복과 은총을 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만 55세 이하, 성실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임 일자

비 안 네 회: 매월 둘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보나벤투라회: 매월 둘째 토요일 09:00 ~ 14:00 (점심, 미사포함)

콜 베 회: 매월 셋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요 셉 회: 매월 셋째 토요일 10:00 ~ 15:00 (점심, 미사포함)

● 장 소: 끈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내 안토니오 회관

● 전화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전 10:30	넷째 토	051-721-2273
서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흥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곡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9년 1월 통권 504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김지영, 이상태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김윤범, 홍민웅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7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대면동 석당을 방문하면 눈에 띄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늘 가슴에 카메라를 메고 저력을 맞이하기도.
그분의 사진에서는 기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형제님의 사진은 진솔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기록함을 갖춘 그의 철거름은 성모님을 닮았습니다.

- 꽃피 수사 -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